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7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	봉헌 (217)	성체 (164)	파견 (479)
---------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가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만일 대죄(큰죄 -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와 십계명과 교회법을 어긴 경우)가 있거나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영성체 전에 반드시 먼저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 죄가 있는데 고해 성사를 안하고 영성체 하는 것 또한 성체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데 미처 고해 성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영성체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소죄(일상적인 죄)는 미사 시작 전례에서 <고백의 기도>를 바치고 사제의 사죄경으로 죄를 용서 받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됩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6	이 그레이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13	유 요한	이 요한	황 스테파노
1/20	이 미틸다	이 바오로	황 스테파노
1/27	이 그레이스	이 요한	황 스테파노

영어독서: 황 스텔라,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미사책 대금: \$15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50	\$106	\$79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공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2/9	김 마론/ 김 헬레나
1/12	홍 마르코/ 홍 아녜스	2/16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1/19	김 요아킴/ 고 안나	2/23	황 가롤로
1/26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3/2	손 아놀드/ 손 쟈마
2/2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3/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김하늘 세실리아 | 배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동생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외갓집은 외할머니부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가끔 우리 식구들이 처음 하느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엄마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 없었습니다. 식구 중에 제일 처음 하느님을 알게 되신 분은 큰이모였습니다. 큰이모가 옆집 이웃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뒤이어 성당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역시 자연스럽게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세 자매인데,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엄마와 동생, 언니, 셋이서 주일이면 성당에 가셨습니다. 그때 엄마는 그렇게 성당에 가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당시 살고 있던 곳은 깊은 시골이라 성당까지는 적어도 두 시간 이상 걸어가야 했는데, 성당에 가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어렸던 엄마는 그런 일들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이모는 항상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서 머리를 곱게 빗으시고 동생들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모들의 어린 모습을 상상하며 늘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들어했었다는 엄마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빠 역시 엄마로 인해 하느님을 알게 되었고, 이모들이랑 결혼하신 이모부들과 그 자녀들, 친척들까지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다 천주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 탓에 저도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되어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2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두번째 월요일 오후 7시**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2월 11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4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견진 성사 축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간: 1월 13일(일요일) 오늘 오후 3시

장소: 세인트 엘리사벳 성당

박은진 벨라벳다 자매님이 견진 성사를 받으십니다.

**견진성사 축하 식사**

저녁 6:30 홍아녜스 자매님댁에서 축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2019년도 미사 책값 안내 (\$50)**

올해 미사 책값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용 영수증 신청**

세금 보고용 교무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님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저의 이야기를 쓰고 있네요. 요즘엔 차도 있고 동네마다 성당이 있어서 하느님과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도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오늘은 일이 바쁘다고 주일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저를 보며 반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모들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모들로 인해 저희 가족들이 다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만나고 교류하고 함께함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터 하느님 중심의 가족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기도를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소리를 내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피곤해서 눈을 감은 채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곁에서 안아주시며 함께 기도해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외국을 가셔도 성당을 찾게 되면 꼭 성수를 찍어 성호경을 긋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라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신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상식이 나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긴장을 하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면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느님께서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주셔서 오늘도 저는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